

시설중심 사회교육에 대한 일 고찰

—경상북도내 독서시설을 중심으로—

최 달 현 ★

내 용	
I. 서 론	III. 마을문고
II. 공공도서관	1. 마을문고의 조직
1.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인의의	2. 마을문고의 현황
2.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약사	IV. 맺는말
3. 경북도내 공공도서관의 실태분석	

I. 서 론

급격히 변천 발전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는 정신적인 자원으로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지식에 의한 물질적인 변화는 우리의 생활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게 되었다. 급변하는 사회속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서 새로운 사회에 대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의 획득에 관한 문제가 밀연적으로 야기되어 진다.

지식의 획득에 있어서 인간은 지금까지 주로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여도 결한 없는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교통 통신이 극도로 발달하여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좁혀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단 하루도 사회적 변화의 지식을 알지 못하고는 사회 속에서의 대화의 광장에서나 생활필수품의 구입 또는 사용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의 변화는 학교교육에만 만족하던 주민들에게 생애교육, 계속교육으로서의 사회교육의 비중을 크게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더욱 조국근대화의 역사적 대과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의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발전하고 변천되어가는 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지식의 획득뿐만 아니라 보다 과학적이고 새로운 생산 지식의 취득을 필수 불가결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현대라는 시대적요건에 부응하며 그 위에 원만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인격형성에 필요한 교양과 제 정보 (Information)를 가장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 기관으로서 우리는 목적이 시민 교육으로 되어 있는 시설중심의 사회교육 기관을 들 수 있겠다.

다음에서 우리 고장인 경상북도의 시설중심 사회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 마을문고, 문화원 및 방송시설 등의 제기관 중에서 우선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의 시설과 제기능을 분석하며 경북에 있어서 내포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제 문제점을 제시하여 보고

★ 경북대학교 문리과 대학 도서관학과 강사

다 한다.

II. 공공도서관

1.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적인 의의

공공도서관은 지식의 보고로서, 문화창조의 온상으로서, 사회적진분과 연령과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함이 없이 지역사회의 모든 주민으로 하여금 평생을 두고 자기 교육, 정보의 수집, 예술의 감상, 조사연구, 오락등의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민에게 평등하고 자유로운 봉사를 제공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고 하겠다. (1) 이러한 공공도서관의 계기능은 1963. 10. 28에 제정 공포된 우리 나라의 도서관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 통법 제1조에서는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일반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도서관자료를 각종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공중에게 봉사하는 봉사기관, 조사 연구기관, 정보 및 오락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교육기관 가운데 공공도서관은 특히 그 중추적인 기관이며 대표적인 시설이다. 그 바탕은 민주적인 이념과 교육적인 기능, 그리고 사회적인 사명과 문화적인 작용을 가장 자유롭고 광범하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이용액 있어서도 경제적이고 총합적이며 다각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적 특질을 다른 어떤 사회교육기관 또는 시설보다도 가장 풍부하게 지닌 까닭이기도 하다. Lowell A. Martin은 그의 저서 National Plan for Public Library Service에서 “성인들에게는 충실한 생존과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이 되기에 필요 불가결한 지식과 사상과 미를 전달하는 기관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공공도서관의 사회적인 존재의의와 가치를 시사한 것이며 다시 같은 책에서 “공공도서관은 미국의 조직계통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기관이다. 고립된 장소에서도 도서관은 지역사회생활에 결정적인 입주를 담당해 왔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조직계통의 최고봉으로서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더 민중들에게 접근된 기관이다”라고 강조한 점을 보더라도 으뜸가는 사회교육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다. (2)

2.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의 약사

한국에 있어서 현대적도서관 운동이 일어난 것은 광무 10년(1906) 이후 애국운동의

(1) 공공도서관의 설립목적은 공·사립을 가릴것 없이 창조되는 문화적욕구를 신속히 선택,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이바지 함으로서 그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ALA가 1943년 “전후 공공도서관 기준”에서 밝힌 공공도서관의 목적을 보면 ① 교육 ② 인포메이션 ③ 예술의 감상 ④ 조사연구 ⑤ 오락등의 5대 기본 목적을 들고 있고 우리 나라 도서관법 제2조와 제3조 제2항에도 ① 조사 ② 연구 ③ 학습 ④ 교양 ⑤ 오락 ⑥ 기타 사회교육 등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2) 장인석, 공공도서관·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1. p. 19—20

일환으로 일어난 것이라 보겠다.⁽³⁾

새로운 문명의 매체인 도서를 널리 보급하여 공중이 직접 도서에 접근하고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써 교양을 높이고 국민적자각심을 일깨우려는 제국 정신에서 일본 또는 구미 각국에 시찰단으로 갔거나 유학한 사람들에 의한 근대 서구식 도서관 설립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서 1876년 한일간에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인의 이주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과 복지를 위하여 사설문고와 도서관을 설치한 일은 있으나 이것이 한일 합방이후 부립 혹은 시립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 오면서 부터이다.⁽⁴⁾ 최초로 나타난 근대도서관은 1901년 10월 일본 흥도회 부산지부에서 공공시설로서 설치한 지금의 부산시립 도서관이다.⁽⁵⁾ 이어서 1908년에 일본인의 이민장려를 위하여 강경도서관⁽⁶⁾이 설립되고 1907년 5월에는 목포도서관의 창립을 보게 되었으며⁽⁷⁾ 대구 시립도서관은 이보다 12년 후인 1919년 8월 16일 당시 대구 부립도서관으로 개관을 보았던 것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도서관은 1920년경까지는 일본인 자신들을 위하여 일본인에 의하여 세워진 시설이었으며, 3·1 운동이 있는 후 조선총독의 문화정책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우리 국민은 도서관의 혜택을 제도적으로 받지 못한 것이 실정이었다. 문화정책을 표방한 일본은 이후 계속 작지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하여 해방된 1945년 현재 공립 24개 사립 37개의 도서관이 되었으며⁽⁹⁾ 사립공공도서관의 대부분은 향교재단이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의 손에 의하여 관리 되어오던 모든 도서관은 우리들에게 이관되어 새로이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전국초기의 혼란과 특히 6·25의 단독적 대참사를 겪는 동안 많은 도서관 건물과 도서관 자료의 손실로 인하여 도서관계는 완전히 재정비의 대열을 기다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63년 10월 28일 법률 제 1424호로 개정공포된 도서관법과 1965년 3월 26일 대통령령 제 2086호로 공포된 도서관법시행령 그리고 1966년 3월 23일에 문교부령 제 172호로서 공포된 도서관법시행규칙등에 의해서 모든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그 법적인 보장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서 도서관 발전의 계기를 이룩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법이 개정되던 1963년에 27개관에 불과하던 공공도서관이 1973년에는 68개관으로 2.5배 증설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도서관 행정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참고로 우리 고장 경북에 있어서 일제시대에 설립된 대구시립도서관 이외에 해방 후 설립된 공공도서관을 들면 다음과 같다.

(3) 백린. 한국도서관연구.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69. p.143

(4) 상계서 p.144

(5) 부산시립도서관. 부산시립도서관약사. 1968. p.1

(6) 상계서. p.151

(7) 백린. 전제서. p.152

(8) 대구부사. p.205

(9) 임순손 도서관학개론.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4. p.59

(10) 한국 도서관 협회. 한국 도서관 통계 1973

경북도내 설립자별 공공도서관

설립년월일	소속청	관명
1919. 7	대구교육청	대구시립
1953. 7	경주시청	경주시립
1963. 4	김천시청	김천시립
1964. 8	포항시청	포항시립
1965. 7	안동시청	안동시립
1966. 8	경산군청	경산군립
1971. 5	경북교위	경북학생도서관
1971.	울릉군청	울릉군립

자료: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통계 1973.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1972.

3. 경북도내 공공도서관의 실태분석

가. 예산

도서관운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의 준비이고 또한 장기적인 예산의 계획은 도서관 행정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의 하나이다. (11)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북에 있는 8개 공공도서관의 경우 총예산 62,781,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80% 이상이 현재의 시설 유지를 위한 인건비와 수용비 기타 제비에 투자되고 있으며 자료구입비는 18%로서 봉사 대상인구 1인당 도서관구입비는 2원75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서관구입비는 우리 나라의 출판물 평균값인 527원 21전에 (12) 비유하여 볼 때 시당 1인 1책의 기준에 도달 하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것이며 봉사기능에 개선을 가져오도 정부의 센터가 되기에는 실로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공공도서관 예산

단위: 1000원

관명	예산액	인건비	자료비	기타	예산에 대한 자료비(%)		
					1인당예산(원)	1인당자료비(원)	비율(%)
계	62,781	24,817	11,506	26,458	15.03	2.75	18
대구시립도서관	29,204	13,956	5,736	9,512	25.79	5.06	20
학성도서관	22,517	7,603	3,574	11,340	18.39	2.92	16
경산군립도서관	915	172	404	339	5.56	2.45	44
경주시립도서관	3,744	883	58	2,803	39.83	0.62	2

(11) Dorothy Sinclair. Administration of the Small Public Library. Chicago. A. L. A., 1965. p. 26-27

(12) 한국출판문화 협회에서 조사한 1969년도 한국출판물평균 1권당 가격

김천시립 도서관	2,027	763	799	465	31.96	12.60	40
안동시립 도서관	2,988	840	900	1,248	37.60	11.33	30
포항시립 도서관	1,386	600	35	751	16.38	0.41	3

(자료: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고서에서 발췌)

나. 장서

8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는 95,089권으로서 봉사대상 지역 인구당 0.023권이 된다. Shenk⁽¹³⁾의 기준인 1인당 1책에 비하면 기준에 겨우 2%에 불과하며 전국의 평균 0.024 책에도 미달하는 상대로서 8개 도서관의 장서를 모두 합쳐도 하나의 단과 대학의 장서량에 비등한 실정이다. 특히 몇개의 도서관은 아직도 개인의 장서량을 초과하기 못하는 형편이어서 지역사회의 정보의 센타로서 그리고 교육적, 문화적, 봉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그 질을 논하기에 앞서 장서량이 극단히게 빈약하며 오히려 그 존재의의를 타시공에 있는 이러한 도서관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행정의 전지효과적 구실에서나 찾을 수 있지 않음이 생각된다.

공공도서관 장서 통계

단위: 권

구분	관명	계	대시	구립	환성도	성립도서관	상립	주립	김시	김천	안시	동립	포항	울릉
계		95,089	38,854	13,803	1,366	15,629	7,101	11,389	4,202	2,745				
동시	서	91,841	38,111	13,477	1,266	14,754	6,631	11,130	3,837	2,435				
연간증가	도	3,248	743	326	100	875	470	250	365	110				
1인당	수	0.023	0.034	0.011	0.008	0.166	0.112	0.143	0.05	0.025				

(자료: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고서에서 발췌)

다. 시설

경상북도내 29개 시군중에 공공도서관이 설치된 곳은 앞에서 본바와 같이 8개로서 이들 도서관의 시설을 분석하여 보면 총 봉사 대상 인구 2,953,897에 대하여 좌석은 2,736석으로 1석당 인구는 1,080명이 되어 한국 전체 공공도서관의 1석당 1,748명에 비하면 그래도 평균 이상의 좌석을 갖춘 셈이 되나 1000명당 5석의⁽¹⁴⁾ 기준에 비하면 겨우 20%에 미달하는 상태이다. 이들 가운데 경주, 김천, 안동, 포항은 그러므로 1석

(13) Paul H. Sheats, et al. Adult Education, 흥순철역.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3. p.201

(14) 三浦道雄, 圖書館施設と設備. 東京, コロナ社, 1969. p.182

당 500명으로 좋은 편이나 울릉도의 경우는 전체 좌석이 40석으로서 2,770명에 1석으로 되어 이름뿐인 시설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연평수에 의한 시설은 집계된 7개 관의 경우 모두 1,768명으로 1평당 대상인구는 1,671명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평균 1,844명에 비하면 앞선것으로 나타나나 이 역시 인구 1000명당 27.6m²의 기준과 비하면 115,322.37m²란 엄청난 부족현상을 엿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시설 현황

관명 구분	계	대 시	구 립	학 생 도 서관	경 주 시 립	김 천 시 립	안 동 시 립	포 시 립	울 릉 군 립	경 산 시 립
인 구	2,953,897	1,132,589	287,729	94,005	63,415	79,465	84,615	110,785	164,563	
연 평 수	1,768	516	343.5	103.5	290	110	170		235	
1평당인구	1,671	2,194.9	837.6	908.3	218.7	722.4	497.7		700.3	
좌 석 수	2,736	932	805	171	260	234	150	40	144	
1석당인구	1,080	1,215.2	357.4	549.7	243.9	339.6	564.1	2,769.6	1,142.8	

※ 학생도서관의 경우는 대구시내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구제에 있어서는 학생도서관 대상인구는 대구시 인구에 포함됨으로 제외되었음
(자료: 경북 교육 통계 연감 1972)

라. 직원

도서관의 3대 구성요소의 하나인 직원의 수는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와 인구, 도서관의 면적, 도서관의 조직, 장서의 양과 그 성격, 봉사지역 범위 등의 개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15)

경북도내 8개 도서관의 직원실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직원 104명 가운데 전문직 사서는 10%에 불과한 11명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이들 모두가 시에 설립되어 있는 5개 도서관에 집중되어 있고 기타 3개 도서관에는 전문직이 1명도 없는 실정이다. 일반직을 포함한 104명의 직원이 봉사해야 할 대상인구는 2,953,897명으로서 8개 도서관중 하나의 도서관도 대상인구가 50,0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곳도 없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전문직 1명당 268,536명을 봉사해야 함으로서 이는 하나의 도서관이 봉사해야 할 인원임을 감안할 때 가히 현재 공공도서관의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 기능이 어느 정도 수행될 수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표현을 달리하면 현재의 공공도서관은 시설을 중심으로한 외적인 구성요소만 갖추고 있는 셈이며 도서관 본연의 계획성 있는 자료의 봉사과 사회교육시설이 되기 위한 인적요소는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전문직사서를 일시에 확보하기는 당장에 어렵다 하더라도 이에 앞서 단계적인 일반직의 확보책을 통하여 기존 시설이나마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1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ublic Library Service. Chicago, A.L.A., 1956. p.43~45

공공도서관 직원 상황

구분 \ 관명	계	대 시	구 립	학 생 도 서 관	경 산 관 립	경 주 시 립	김 천 시 립	안 시	동 시 립	포 향 시 립	울 립 관 립
계	104		41	35	4	7	5	7	4	1	
전문직(A)	11		2	5			1	2	1		
일반직(B)	93		39	30	4	7	4	5	3	1	
인구/A		566,295	57,546				63,415	39,733			
인구/B		27,627	9,590	41,141	13,429	12,683	11,352	21,154	24,269		

※ 학생도서관의 경우는 대구시내 초·중·고 학생수를 대상으로한 것임
(자료: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고서에서 발췌)

마. 도서관 이용

공공도서관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Information Service Center가 되는데 있다. 이런 면에서 경북 공공도서관 이용실태를 분석하여 보면 8개 도서관의 총 이용자수는 연간 661,757명에 1일 평균 2,011명으로 되어 총 좌석 2,736석의 74%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 된다. 총 대상 인구의 연간 이용 빈도는 1인당 평균 0.22회로서 총 인구의 $\frac{1}{5}$ 만이 연간 1회 도서관을 이용한 결과가 된다. 다시 이를 상세히 보면 안동시립도서관이 0.75회로서 가장 높으며 울릉도의 경우 0.03회 밖에 되지 않아 미비한 시설마저 늘리고 있다고 하겠다. 놀라운 사실은 문화와 교육도시를 자처하는 대구시의 경우 몇개의 지방 공공도서관 보다는 이용율이 낮다는 사실인데 이는 그동안의 대구시립도서관에 대한 천대와 비교적 시민들이 개인장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 몇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 같다.

도서의 이용면에 있어서도 대구시립에 앞서 경주시립이 시민 1인당 0.25책으로 여대로 이용하고 있고 대구시립의 경우는 0.048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도서관 이용자중 도서관 장서를 이용하는 비율을 보면 경주시립이 35%로서 가장 높고 다음이 대구시립의 27% 가장 낮은 곳이 김천시립의 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661,757명의 도서관 이용자 가운데 70~80%가 단순히 도서관 좌석만을 이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도서관 이용율이 저조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도서관 자료의 빈곤과 둘째는 도서관 봉사의 결여 때문이라고 압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경북도내 공공도서관의 예산과 자료와 시설 및 직원을 분석한 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비한 시설과 자료와 직원마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은 지역사회의 공중을 위한 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보다는 외적인 시설유지를 위한 현상에만 급급한 실정때문이라고 하겠다.

공공도서관 이용 통계

구분	개관 수	연간 이용자 수	1일 평균 이용자 수	연간 인구당 이용률	이 책 용수	1일 평균 이용책 수	연간 인구당 이용책 수	연간 이용자 수	이용자 중 도서이용자 비율
계		661,757	2,011	0.22					
대구시립	332	205,876	620	0.18	55,361	167	0.05	27%	
학생도서관	340	256,891	756	0.89	47,840	141	0.17	19%	
경산군립	300	3,200	11	0.01					
경주시립	337	66,822	198	0.71	23,492	70	0.25	35%	
김천시립	350	32,295	92	0.50	2,213	6	0.034	7%	
안동시립	287	59,962	209	0.75					
고령시립	303	32,864	108	0.38	8,431	28	0.099	26%	
울릉군립	236	3,847	16	0.03	810	3	0.007	21%	

(자료: 교육위원회 사회체육과 보고서에서 발췌)

Ⅲ. 마을 문고

오늘날 보통 교육의 의무화와 문맹퇴치운동의 성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농어민들도 독서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읽을 도량도 적은 뿐만 아니라 독서가 생활습관화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종이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변천하는 사회에 맞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독서가 생활의 일부분을 이루도록 만들 수 있는 사회교육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런 취지에서 다음문고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농어촌의 실정에 가장 알맞는 모마도서관을 전국 지방각쪽에 보급하여 이들 지역사회의 사회교육센터로 지도 육성시킴으로써 학교교육의 확대를 도모할 뿐 아니라 교양을 높이고 문맹자를 없애며 생산지식을 보급함으로써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비롯되었던 것이다.

1961년 2월 1일 사단법인 다음문고는⁽¹⁶⁾ 그 후 10년동안에 정부자금과 민간지금⁽¹⁷⁾으로 농어촌의 독서운동을 통한 지역사회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책을 통한 농촌학교”라고 할 수 있는 마을 문고는 그 수에 있어서 매년 1.5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초의 다음문고 26개에서 1971년 8월말 현재 21,683개의 문고와 651,529명의 회원을 갖게 되었고 장서도 1,446,086권으로 늘어나게 되었다.⁽¹⁸⁾

더구나 마을문고는 1969년 5월에 발족한 자매기관인 사단법인 “국민독서인행”을 통해 “직장문고”와 “군인문고”등으로 확대되어 현재는 20개의 직장문고와 30개의 군인

(16) 합동통신사. 합동연감 1972. p.229

(17) 대한 교육 연합회. 한국교육연감 1971. p.27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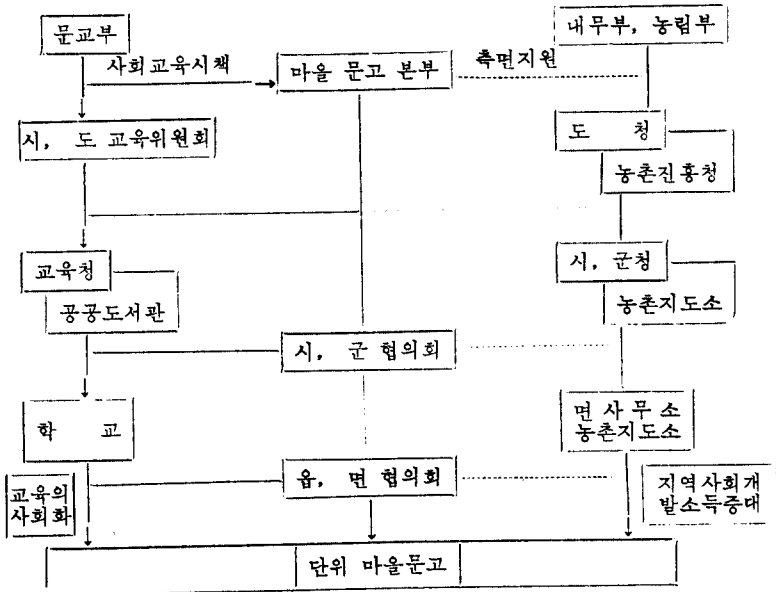
(18) 문화공보부. 문화예술자료집 1973. p.87

문교가 설치되어 있다. (19)

1. 마을문교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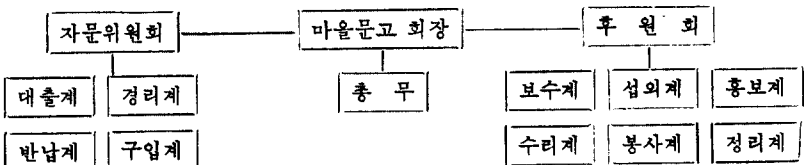
마을문교는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교육시책으로서 문교부와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학교등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교육의 사회화를 기하고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내무부, 농림부의 직접적인 후원하에 지역사회개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다.

마을문교의 조직



(참고 : 교육연감 1972. 새한신문사.)

단위 마을문교 조직표



(참고 : 경북마을문교 회지)

(19) 한국교육연감 1971

전국적으로 도서를 통한 사회교육시설로서는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진 마을문고의 조직표를 그 지도체계에 따라 도시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마을문고는 책장, 독서회(도서관 직원과 같이 마을문고의 관리·운영담당) 그리고 선정도서의 3요소로 이루어지며 누구나 설립자가 희망하는 곳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독서회는 14세 이상되는 마을사람 10~30명으로 조직하고 임원은 가능한 청장년중에서 그 마을에 영주자로 구성되어진다. 처음에는 성별과 연령의 구별 없이 조직될 수 있으나 회원이 불어남에 따라 마을의 사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조직을 세분할 수 있다.

남자부 : 성인반	31세 이상
청년반	18~30세
소년반	14~17세
여자부 : 부인반	결혼한 부인
처녀반	18세 이상의 처녀
소녀반	14~17세

독서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 교문으로 구성되어지고 매년초에 개최되는 정기총회외에 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임시총회를 가질 수 있다. 임원회에서는 월 1회 모여서 지난달의 사업반성과 새달의 계획수립 및 독서회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논하도록 되어 있다.

마을문고 상호간의 협조를 통한 관리·운영의 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의 같은 행정구역내에 10개 이상의 독서회가 마을문고 협의회를 조직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읍면협의회.....1개면에 10개 마을문고 이상으로 조직

학구단위협의회.....지역사회의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학구내 마을문고 10개 이상으로 조직

시군연합협의회.....읍면단위, 학구단위 협의회가 뭉쳐 시군단위 연합 협의회조직 이들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협의회 회원자자가 부담하고 협의회가 발전됨에 따라 자체 기금 또는 찬조금등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업으로서는 책의 바뀌 읽기, 문고의 효과적운영, 이웃마을 돕기 사업 등이다.

이와 같은 조직으로써 마을문고는 지역사회와 학교도서관과 협동하여 새마을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하고 주민들의 애향심과 협동심을 길러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2. 마을문고의 현황

가. 문고의 수

경북에 있어서 1971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총 문고수는 4,521개로서 설치대상 5,

650개의 80% 이상을 이루고 있어 전국의 41%⁽²⁰⁾에 비하면 대단히 활발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문고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인구는 1문고당 1,019명이며 가구수로 보면 189개 가구를 담당하고 있어 자연부락단위에는 거의 한개 이상의 문고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겠다.

이들 문고의 설치를 시군별로 보면 예상밖에도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데 도시의 경우 대구시만 92%로서 미달할 뿐 그외의 시는 모두 100%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경주시의 경우 600%라는 보기 드문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해 각군 단위의 경우에는 울릉의 154%와 문경의 110%를 제외하면 한결같이 70~90%의 기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문고당 인구나 가구수에 있어서는 전술한바와는 정반대의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개시의 경우 문고당 인구는 경주를 제외하고 모두 1,000명을 상회하고 그 중에도 대구시는 24,622명이란 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음에 비해 군단위의 경우 안동, 영주, 울릉을 제외한 21개군은 모두 1,000명 미만에 그치고 있다. 문고당 가구수에 있어서도 5개시의 경우 4개시가 500가구 이상이나 24개군에서는 울릉군을 제외하고 모두 100~200가구에 불과하여 농촌에 있어서 마을 문고를 통한 사회교육시설은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고 이러한 현상은 장차 지역주민이 어디서나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경북 도내 마을문고 현황

시군	설치대상	문고수	설치%	문고당 인구	문고당 가구	회 원	장서수	가구당 장서	인구당 책수	회원당 책수	인 가	구
대구	50	46	92	24,622	4,977	1,047	3,450	0.015	0.003	3,295	1,132,589	228,332
포항	13	18	138	4,701	927	660	1,469	0.088	0.170	2,226	84,615	16,680
경주	20	112	600	839	162	3,108	11,310	0.622	0.120	3,638	94,005	18,167
김천	12	25	208	2,537	502	1,426	3,185	0.254	0.502	2,233	63,415	12,540
안동	11	16	145	1,842	973	541	1,352	0.087	0.017	2,499	79,465	15,460
달성	217	174	80	750	133	3,706	10,970	0.474	0.084	2,960	130,514	23,128
군위	172	164	95	418	82	5,407	8,651	0.696	0.126	1,599	68,603	12,417
의성	394	218	55	857	150	3,284	13,239	0.406	0.070	1,817	186,729	32,601
안동	294	220	75	7,781	139	5,428	15,338	0.503	0.008	2,825	177,838	30,491

(20) 전국의 마을문고는 21,683개로서 대상 53,123에 대하여 41%이다.

경충	134	105	78	781	132	3,641	6,271	0.452	0.076	1,722	82,033	13,861
영양	113	112	99	601	101	3,775	6,519	0.576	0.096	1,727	67,336	11,307
영덕	202	122	60	930	167	4,321	8,915	0.436	0.078	2,063	113,430	20,431
영일	357	266	75	736	138	8,606	13,846	0.377	0.069	1,608	198,306	36,692
월진	296	255	86	722	133	7,856	16,629	0.491	0.080	2,115	184,098	33,818
영취	319	274	96	692	123	8,913	15,318	0.454	0.080	1,718	189,570	33,677
경산	280	240	86	686	122	6,601	20,431	0.698	0.124	3,095	164,563	29,259
영포	212	198	94	552	99	5,260	14,231	0.727	0.130	2,705	109,190	19,566
고령	148	121	82	561	100	3,037	8,997	0.745	0.132	2,962	67,887	12,067
성주	232	143	62	738	130	5,267	8,760	0.470	0.083	1,663	105,513	18,600
영곡	188	120	64	96	174	3,254	7,836	0.375	0.067	2,408	115,439	20,875
영주	279	225	80	580	106	6,401	10,033	0.421	0.076	1,567	130,595	23,797
삼산	186	137	74	787	140	4,631	7,554	0.393	0.070	1,631	107,780	19,220
상주	408	248	61	942	169	7,373	16,428	0.392	0.070	2,228	233,632	41,819
분경	241	206	110	594	108	6,593	20,793	0.723	0.131	3,153	157,909	28,733
영주	230	137	60	1,051	187	4,544	9,110	0.355	0.063	2,004	144,045	25,614
봉화	170	167	98	986	182	5,496	8,277	0.281	0.050	1,506	164,598	29,373
울진	184	139	76	834	146	3,631	8,711	0.430	0.075	2,399	115,942	20,334
영주	24	37	154	2,994	532	1,475	2,212	0.112	0.019	1,499	110,785	19,673
예천	264	216	82	112	21	6,689	13,913	3,122	0.573	2,079	24,269	4,456
계	5,650	4,521	80	1,019	189	142,971	293,748	0.344	0.063	2,054	4,604,702	853,588

(자료: 문화공보부, 문화예술자료집 1973)

나. 회원수

경북의 마을문고 4,521개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142,971명으로서 도민 4,604,702명의 3%에 불과하여 설치된 마을문고의 수에 비해 너무나 엄청난 취필여검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록 문고의 설치는 되어 있다고 하여도 문고활용의 미숙과 또한 자료의 비약은 그 원인의 하나로 들 수가 있고 들 때는 영농의 기술이 아직도 전근대적

탈피하지 못하여 농민의 여가 선용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단의 부탁마다 거의 설치되어 있는 마을문고시설의 충분한 활용은 문고를 통한 지식의 보급과 정보전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장서

회원 142,971명에게 읽히기 위한 장서는 1971년 통계로서 293,748책이며 이는 가구당 0.344책, 인구 1인당 0.063책, 회원 1인당 2.054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문고의 설치는 내외의 적극 장려책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그문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자료에 있어서는 빈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인구의 3%에 불과한 회원에게 그나마 2권 정도의 책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고수에 의한 외적시설에 비하여 자료의 확보가 얼마나 미진한가를 다시금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는 군단위에서 더욱 심각한바 농촌에 있어서는 거의 회원 1인에 대하여 1책 정도의 장서밖에 갖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책을 통한 기술이나 지식의 보급에 기여한다는 마을문고 본래의 목적 달성은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Ⅳ. 맺 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한 시설중심의 사회교육기관인 공공도서관과 마을 문고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1963년 10월 28일에 공포된 도서관법과 1961년부터 시작된 마을문고 운동으로 인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과 마을 문고는 그동안 일찍 보지 못하던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아직도 시설, 자료, 직원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도 지역사회 주민에게 최소한의 봉사할 수 있으리 만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었다. 우선 시설에 있어서는 비록 공공도서관의 수가 적긴 하지만 대신 마을문고로서 그 부족을 대울 수 있으리만큼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활동이 활발치 못한 지역일수록 마을문고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서도 쉽게 알수가 있었다. 그러나 미비된 이 시설마저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것이 공공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 꼭 같이 찾아 볼수가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외적시설의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도서관의 내적요인인 자료와 직원의 질적 향상에 그렇게 주력을 할 수 없었던 결과로 간주된다. 시설과 자료가 빈약하면 할수록 없는 시설과 부족한 자료를 심분 활용할 수 있는 관건은 도서관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관리 및 운영의 합리화와 기독교적인 봉사정신으로 지역 사회의 공중에게 정보의 센타 교육 및 문화의 센타 오락의 센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은 우선 도서관을 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이미 법으로써 제도적으로 사회교육 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

비고 한 이상 사회교육면에 있어서도 경제 개발에 못지 않는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 도서관과 마을문고는 보다 유기적인 관련을 통한 상호협력체제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을문고는 마을문고 자체의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고의 실지에 따르는 운영상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야기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지역사회내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과의 **Inter-Library Loan**을 통한 기술과 자료의 상호보완 협력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A Study on Public Libraries and Micro-Libraries
in Gyeong Buk Province

Choe, Dal Hyun ★

{Summary}

The public library and micro-library as institutions of social education have been greatly develop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library law enacted on October 28, 1963 and the micro-library movement begun in 1961. However, they have still yet many problems to solve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urpose effectively.

As compared with the staff and library materials, buildings are more than a match for the others. Although many facilities are not complete enough to serve the public, people do not make the best of the facilities in both the public libraries and micro-libraries. The cause of such a result would be taken from a reason that the founders of the libraries could not concentrate their interest on the staff and materials, for they were bent on the establishment of external facilities of the libraries.

The poorer materials and facilities are, the more effort and better quality of the staff are required for their best utilization. As it is the information center of the community, the management of a library should be scientific and reasonable. In addition, librarians have to do their best to serve the public with the spirit of Christianity under the more active support of the government. Finally, institutions of social education in this community including public libraries and micro-libraries might establish a mutual cooperative organization for more effective library service.

★ Instructor, Dept. of Library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